



# 歡 迎 辭

존경하는 지식경제부 안철식 에너지자원실장님,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님, 한국전기안전공사 양재열 사장님과 전기관련기관 및 단체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해외 초청인사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COEX에서 「2008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의 공동주최자로서 해외 인사 초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신 지식경제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6개발전사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유망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2003년부터 시작한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6개 발전회사를 비롯한 전기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꾸준한 노력으로 국내 최대의 전기관련 전시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20여 개국 250여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 세계 32개국에서 300여명의 유명인사가 초청되어 방문하는 등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초청인사가 한 장소에서 전시회, 수출상담회, 조달 설명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전시회의 내실을 다짐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회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시회 참여업체가 많은 수출상담과 계약이 성사됨으로써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해외 초청인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방문하신 기간동안 소기의 목적달성과 아울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체험 등을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귀빈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 희 평